



보도자료

## 모건 보르시의 대담한 정신

세 번의 프리다이빙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모건 보르시(Morgan Bourc'his)는 1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TUDOR(튜더)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본투데어(대담하게 도전하라) 정신을 전 세계 바다에 생생하게 전달해 왔다.

튜더는 2014 년, 이제는 아이코닉한 다이버 워치가 된 펠라고스(Pelagos)의 광고 제작을 위하여 최초로 모건 보르시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해당 광고에서 잠수 중인 다이버는 마치 육지를 걷듯 해저 위를 우아하게 거니는 모습을 선보였고, 그 다이버가 모건 보르시였다. 그는 물속에 가라앉은 그리스의 유적을 발견하고, 그 유적의 기둥 중 하나에는 그리스어로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인 *Pelagos* 가 새겨져 있다. 광고를 제작하는 동안 보르시의 손목에는 늘 튜더 펠라고스가 자리했으며,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이 시계를 착용했다. 광고 제작이 완료된 직후, 자신의 프리다이빙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용감하고 대담한 도전을 해왔던 그는 튜더의 홍보대사가 되었다.

보르시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프리다이빙을 시작하여 푸아티에 대학교(University of Poitiers) 재학 중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후 마르세유에 정착하여 이 스포츠의 초기 단계에 심혈관 생리학에 대한 그의 지식을 적용했다. 그는 2005 년에 글로벌 프리다이빙 연맹인 프랑스 아이다(AIDA) 팀에 합류했고, 2007 년에는 수직하강(CWT) 프리다이빙 부문에서 프랑스 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그는 2008 년 프리다이빙 월드 챔피언십(Freediving World Championship)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5 년 후인 2013 년에는 다시 한 번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가장 최근 기록으로 그는 2019 년 프랑스 빌프랑슈쉬르메르에서 핀 없이 진행되는 가장 순수한 프리다이빙 전문 분야, CNF 부문에서 수중 91 미터까지 잠수에 성공하며 세 번째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다.

### 튜더 x 모건 보르시

보르시는 튜더 패밀리에 합류한 이후, 튜더의 첫 번째 펠라고스 광고를 시작으로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보르시가 핀 없이 튜더 시계만을 착용한 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심까지 잠수에 도전하는 오랜 전통의 시작이 되었다. 2016 년 짧은 광고 필름인 *Take a Breath* 를 시작으로 그는 튜더와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다. 보르시는 2018 년 *TUDOR Pelagos: Ice Diving* 를 통해 알프스 산맥의 얼음처럼 차갑고 어두운 호수에서 다이빙을 선보였으며, 2019 년 튜더의 *Dare to Dive* 프로젝트에서는 동료 튜더 홍보대사인 데이비드 벅엄(David Beckham)에게 최장 시간 숨을 참는 방법을 전수해 주었다. 또한 2020 년 보르시는 2019 년 프리다이빙 월드 챔피언십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준비 과정을 기록한 특별 프로젝트인 *Road to the Depths* 에서 쉽게 드러내지 않던 자신의 속마음을 비추기도 했다. 2020 년 보르시는 장편 다큐멘터리 *The Quest For Nature* 에서 노르웨이의 얼어붙은 피오르드에서 범고래를 찾는 대담한 여정에 나섰다. 해당 작품은 많은 관심 속에 공개되었고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보르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튜더와 계속해서 협력하며



프리다이빙은 물론 스토리텔링의 한계 역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현재 보르시는 스포츠 훈련 기관인 CREPS에서 유망한 프리다이빙 선수들을 가르치고 더욱 깊은 잠수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여행과 탐험을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르시는 전 세계에서 튜더와 함께 *본투데어* 정신을 구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

*본투데어*는 튜더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문구다. 이는 브랜드의 역사와 오늘 날의 의미를 모두 반영한다.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은 오랜 기간 동안 육지, 빙하, 하늘, 그리고 심해에서 과감하게 모험을 하는 이들의 손목에서 함께 해왔다.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의 손목 시계를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튜더를 설립한 한스 빌스도르프의 혁신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또한 오늘날 워치메이킹을 있게 한 튜더의 선구적인 접근 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첨단을 달리는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튜더가 이룬 혁신들은 필수적인 기준이 된다. 데이비드 베컴, 주걸륜(Jay Chou), 올 블랙스(All Blacks) 등 삶에 대한 대담한 도전을 통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최고의 홍보대사들이 이처럼 훌륭한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 튜더 소개

튜더는 세련된 스타일과 입증된 신뢰성,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다. 튜더 브랜드의 역사는 롤렉스의 설립자 한스 빌스도르프(Hans Wilsdorf)가 'The Tudor'라는 상표를 등록한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46년, 그는 더욱 합리적인 가격대로 롤렉스에 버금가는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시계를 제공하고자 Montres TUDOR SA를 설립했다. 그 결과, 튜더 시계는 역사적으로 대담한 모험을 했던 이들의 손목에서 함께 해왔다. 오늘날 튜더 컬렉션에는 블랙 베이(Black Bay), 펠라고스, 글래머(Glamour), 1926 등의 플래그십 모델 포함되어 있다. 튜더는 2015년부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해왔다.